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

쫄카파 롱상 닥빠 지음

존귀한 스승들께 귀의합니다.

1.

해탈을 구하는 이들이
불법의 핵심이자 보살들께서 찬탄하신 수행의 길로
제대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2.

윤회의 인락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기 적합한 인간의 몸이 의미 있도록 정진하며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행에 의지하는
인연 있는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3.

절실한 출리심이 없다면 윤회의 바다에서
인락을 기대하는 마음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며
중생들은 윤회를 연연하는 것으로 인해 여전히
속박 당하니 우선 출리심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수행에 적합한 환경은 얻기 어렵고

수명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마음을 길들여 이생을 연연히는 마음을 없애고
속일 수 없는 업과와 윤회의 고통들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내생을 연연히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5.
이와 같이 마음을 닦아서 윤회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이 한 순간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밤낮으로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출리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6.
비록 출리심이 있더라도
청정한 발심이 없다면 위 없는 깨달음의
완전한 안락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지혜로운 이들은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7.
거친 네 줄기 물살에 휩쓸리고
벗어나기 어려운 업의 족쇄에 단단히 묶이며
나라는 생각의 덫에 사로 잡혀
캄캄한 무명의 어둠이 모든 것을 은폐합니다.

8.
끝없는 윤회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
세 가지 고통들을 끊이지 않고 겪는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최고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9.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가 없다면
출리심과 보리심에 길들여졌더라도
윤회의 뿌리를 끊을 수 없기에
따라서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합니다.

10.

어떤 이가 윤회와 열반, 그리고 모든 존재의
원인과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하여
인식의 대상마저 전부 없어진다면
그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11.

의존하여 발생함을 보는 것에 거짓이 없음과
공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관하게 생각되어
각각으로 보이는 한
여전히 부처님의 의중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12.

어느 날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 거짓됨 없이 보이는 것과 함께
인식한 모든 대상이 없어지면
그 때 견해의 분석이 끝난 것입니다.

13.

더불어 보는 것으로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공성으로 없다는 견해를 없애니
공성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이치를 이해한다면
양 견해에 현혹 되지 않을 것입니다.

14.

그러니 아들아,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스스로 온전히 이해했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정진의 힘을 키워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거라.

이것은 다문비구 수승한 룩상닥빠가 차코에서 수행하는
악왕닥빠에게 보낸 글입니다.

달라이라마님의 러시아 법문을 위해 기존에 있던 번역본들을
참고하여 양지애가 다시 번역하였습니다.